

2014 경기문화예술교육포럼

불온溫한

문화예술교육



사랑하며
춤출 수 있는
용기

주제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와 과제

문화예술교육 제도화 10년을 앞두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민간자율의 생동성과 날카로움을 잃고서 학습자들의 삶으로 따뜻하게 녹아들지도 못하고 사회와의 접촉면에서 반성적 영향력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짚어봅니다.

제도가 규정하는 양식과 관성에 따라 어다선가 본듯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기에 급급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진단하면서 각자 활동하는 지리에서 힘써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4/1/28 14:00 – 17:20

평촌아트홀 열린 카페 아트림(Art林)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50명 이내
커피 음료 1,000원

참여신청

주최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 경기문화예술교육웹진 지지봄봄
www.gbom.net

1부	세션	주제	발표 및 진행
14:00	시작		강원재 / 사회
15:30	기조강연 30'	예술, 생각하는 손과 삶의 교육	안상수 / PaTI 설립자
	기조발제 15'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와 과제	이원재 / 문화연대 사무처장
		삶과예술배움청	정경운 / 전남대 교수
	사례발표 40'	마석이야기	양철모 / 작가, 믹스라이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	임승관 / 문화바람 대표
2부			
15:40		기뻐서 기꺼이 하는 예술교육	민경은 / 여러가지연구소 대표
17:20	주제발표 40'	예술교육, 다시 토양을 만들자. 한 사람의 혁명을 위하여!	고영직 / 평론가, 지지봄봄
		대안적 삶의 문화예술교육	김경옥 / 민들레 편집장
	종합토론 60'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태와 과제] 문화예술교육, “성과가 아닌 성찰의 시간”을 요구하다

이원재 / 문화연대 사무처장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문화제도 내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을 달성한 영역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가 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2013년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연간 지출액만 1,000억원이 넘는 규모에 도달했다.¹⁾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의 경우 지난 5년 사이(2009년부터 2013년 기준) 2.3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시수는 79시간(2005년)에서 1,925시간(2012년)으로 약 24배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인원은 323명(2005년)에서 6,774명(2012년)으로 약 21배 증가하였다.

박근혜정부 역시 집권 이후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둘러싼 양적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인수위원회²⁾는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으로 ‘(78)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라는 추진과제를 통해 ‘②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이라는 세부 과제 안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2014, 1,300개)’, ‘전국 모든 학교(11,532개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교육사 파견’이라는 세부 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③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이라는 세부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의 <2013년 문화예술분야 성과 발표>³⁾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박근혜정부는 “아동·청소년기의 초·중·고교의 63%인 7,254개교에 예술강사 4,500명을 파견하여 210만 명의 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전국 600여 개의 토요일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및 그 동반가족 약 3만 명이 문화로 함께하는 토요일을 보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 등 1만 5천 명의 성인에게 근로환경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산업문화단지 페스티벌’ 등을 개최”했으며, “노인복지회관 등에 계신 어르신 6,400명에게 노년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청춘연극제’, ‘실버합창대회’ 등을 개최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양적 팽창만큼이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둘러싼 문제들 역시 빠르고 견고하게 구조화되었다. 그 동안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부와 진흥원 중심의 공급자 및 중앙 집중형 행정 구조”, “전문기관으로서 진흥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의 이분법적 구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강사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영고시(http://intro.arte.or.kr/introduction/publicAnnounce02_03.jsp)에 의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도별 지출액은 64,649,000원(2011년 결산), 79,011,000원(2012년 결산), 108,740원(2013년 예산)의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 선정>,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2013년 2월 21일, 2쪽.

3) 문화부, 2013년 12월 10일자 보도자료 참조.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212

파견제도 중심의 쏠림 현상 및 노동권 문제”, “학교 및 교육제도에서 배제된 방과후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문화부, 진흥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이의 협력체계 부재 및 하청계열화”, “일자리 숫자 확대 중심의 왜곡된 정책 구조 및 성과주의”, “문화예술교육사 문제를 비롯하여 관련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부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생산의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역시 앞서 언급한 구조화된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양적 팽창과 일자리 중심의 성과주의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완성”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과도한 사랑이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정책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철학 및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자체의 사회적 역할이나 전략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며, 단순히 복지정책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문화향유를 위한 양적 팽창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본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나 의미는 실종된, 국가 정책의 층위에서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이 연계하고 통섭하며 자립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교육”적 가치는 사라진 괴이한 일자리 사업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정책,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숫자가 확인되는”, “일의 질보다는 자리의 양이 중요한”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사업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이다. 이는 문화도, 예술도, 교육도 아닌 그냥 고용정책이며, 그마저도 나쁜 일자리를 양성하고 문화예술 현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후진적인 고용정책이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는 문화와 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통섭하며, 자립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가치가 교육제도를 통해 그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이자 다양한 주체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일상적으로 확장되는 경로이기도 하다. 동시에 교육적 가치가 문화적 감수성과 창조성을 통해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와 행정의 욕망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본래 정책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취지, 최상위 목표를 다시 복원 혹은 재설정하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본래 목표와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좌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문화부가 원하는 사업을 진흥원에서부터 지역공모사업 주체에 이르기까지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지역 커뮤니티가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환경 및 콘텐츠를 정부와 문화부 그리고 전문기관(중간조직) 등이 구현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로서 제도와 행정이 작동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를 둘러싼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사업 중심의 일회성 지원제도의 개혁”, “자율적인 문화예술교육 추진주체

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상과 역할 재정립”, “문화부 지시사업이 아닌 학교, 지역사회, 강사 등 파트너 중심의 지원사업 중심으로 진흥원 혁신” 등이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이다. **성과가 아닌 성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주체들이 더 많아지는 과정에 바로 문화예술교육이 존재한다. ■**

삶과예술배움청: ‘배움’으로서의 삶을 다시 생각한다 - ‘학교 밖 학교’를 위한 실험 -

정경운 / 전남대 교수

1. 고민의 시작: <창의예술학교>

■ ‘학교 밖 학교’라는 실험이 가능할까? : <창의예술학교>는 ‘학교 밖 학교’라는 개념으로 출발. 이 개념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반성을 전제

① 양질전환의 시기를 놓쳐버린 문화예술교육 현재에 대한 반성

-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입안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한국사회 내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윤리적 가치와 목표의식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 예술강사 파견, 질적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의 성행 등 지금까지 국내 문화예술교육 방향은 계량적, 형식적 사고에 매몰되는 한계를 보임.

-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한계

⇒ ‘학교’라는 형식을 통해 책임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진화,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교감 등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성장할 수 있을까?

② 공포와 괴담의 수준까지 가버린 공교육 학교 현장에 대한 반성

- 개인을 균질화하고 규제와 통제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무력화시키는 현재 학교 상황

⇒ 개인마다 달리 나타나는 창의성의 지점, 자유로운 사고를 존중하며, 실패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싶은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 우리에게 요청된 질문들

-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 “지식이 아닌 지혜”의 문제
- “배움의 새로운 구조는?” → “학교 밖 학교”라는 형식
- “삶/예술/교육을 융합하는 교육실험이 가능할까?” → “움직이는 학교, 노작학교, 인문예술학교 지향”
⇒ <창의예술학교>는 “기존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

2. <창의예술학교>는...

■ 지향점

- <창의예술학교>는 문화예술의 내재적 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힘을 복원하고 함. 사물과 개인,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교감과 감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 삶을 억압하는 다양한 요소들(계층, 세대, 인종, 지역 등 간의 갈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유도. 단순히 개인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시민의 삶 재구성과 관계. 인간적 삶이 중심이 되는 문화공동체 구축을 지향

- 이를 위해 <창의예술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은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재해석,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의 동시 성장,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의 공동체적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비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삼음,

■ <창의예술학교> 내 학교들(2013-2014)

① 바퀴달린학교(초등) : “삶 속 예술(노작)학교”

특성	“노작(勞作)을 통해 배운다”는 비전을 통해, 갇혀 있는 학교가 아니라 마을 골목, 논둑길, 예술가의 작업실, 옥상 등 세상으로 열려 있는 모든 곳이 학교이며 교실이 되는, 삶으로부터 배우는 학교
교육과정 (반 구성)	▶ 물건의 재구성 ▶ 주말건축 ▶ 땅과예술 ▶ 여행인문학 (4개 반)
학생수	2012년(39명), 2013년(34명)

② 보헤미안여행학교(청소년) : “자유와 지혜를 구하는 여행학교”

특성	자유롭고 예술적인 여행을 청소년 스스로 기획해 다양한 세상을 만나러 떠나는 학교로, 예술적 가치가 살아있는 ‘그곳’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 내 것을 나누어 ‘그곳’을 더 아름답게 하는 여행을 지향
교육과정 (반 구성)	2013년: ▶ 몸짓여행 ▶ 경계+인여행 ▶ 빈손여행 ▶ 섬여행 ▶ 미로여행 (5개 반) 2014년: ▶ 경계+인여행 ▶ 방랑자여행 ▶ 남인천하 (3개 반)
학생수	2013년(41명), 2014년(35명)

③ 도시축제창의학교(청년) : “도시를 살리는 청년들의 축제기획학교”

특성	도시문제를 창의적/예술적 방식으로 극복하는 축제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워크숍형 청년학교
교육과정	▶ 1학년: 축제관련 기초/심화교육, 축제기획실습 ▶ 2학년: 워크숍형 기획
학생수	2013년(40명), 2014년(18명)

- 공통사항: 입학식/졸업식, 예술캠프, 통합수업, 전 교육과정 모니터링, 네트워크 포럼

3. 고민의 전환 : <삶과예술배움청>이란 이름

■ ‘배움청’?

- 민간영역의 힘에 대한 신뢰
- 교육청/배움청, 관청(官廳)/민청(民廳)

■ <삶과예술배움청>의 계획 : 배움터의 네트워크

- 현재 3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삶과예술배움청>의 교육영역을 확장할 계획 (예: 시민인문학교, 지식순환대학, 노인예술야학, 청소년현장대학 등)
- 기관/단체의 네트워크가 아닌, 다양한 ‘학교 밖 학교’들로서의 ‘배움터’들의 네트워크
- 공동의 지향점과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약속의 필요

■ **지역사회의 새로운 담론 : 작은 ‘배움청’들의 네트워크 제안**

- <삶과예술배움청>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배움청’ 형식에 주목
-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 5대 의제 중 하나로 ‘광주배움청’ 제안
- 학교 밖에서의 ‘배움’을 지역 민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사고할 필요에서 제기
- 구상 : 배움터들의 네트워크→작은 ‘배움청’들의 네트워크(삶과예술배움청+마을배움청+...+n)→‘광주배움청’(배움터 지원/공동 프로젝트 진행/정책 연구 등)
- 민간단위의 ‘배움’에 대한 해법들이 공적단위(학교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 **‘광주배움청’ 내에서의 <삶과예술배움청>의 포지셔닝**

- <삶과예술배움청>에서 가능한 ‘배움터’의 다양한 대안적 형식들을 실험, 유통시킬 수 있을 것

‘학교 밖 학교’를 실험하다

마치 소풍날 아침처럼, 속살까지 간질거리는 설렘을 안고 서둘러 가고 싶은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창의예술학교는 그런 상상을 현실 속에 실현해보고자 출발한 학교입니다. ‘학교 밖 학교’를 꿈꾸는 우리들의 상상은, 현재 공포와 괴담의 수준까지 가버린 현실 학교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배움의 설렘을 복원시키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식이 이미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배움이 어떻게 설렘 수 있을까요? 설렌다는 것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겁니다. 타인에 대한, 주변의 사물에 대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이 작동될 때, 비로소 교감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타인, 사물, 세계에 대한 교감과 깊은 이해는 자신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억압, 배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상호공존의 대상이라는, 연대의 감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교감과 깊은 이해의 방식을 배우는 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의 영역입니다.

창의예술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노장 예술가의 세월 깊은 언어와 손길을 통해 일상의 내재적 힘을 키우고, 길에서 만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질문을 만들어내며, 주변의 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서 창의예술학교는 사람, 길, 지역 등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곳을 학습의 장으로 삼습니다. 세상이라는 교실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존중 받으며 몸과 마음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학교, 실패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우리들이 상상하는 ‘학교 밖 학교’로서의 창의예술학교의 미래입니다. 국내 초유의 이 설레는 실험을 깊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예술학교> 뉴스레터, 칼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의 풍부함

양철모 / 작가, 믹스라이스

만남의 시작

2004년 이주노동자 활동가와 마석가구단지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늦은 저녁 마석가구단지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마치 낮이 없는 곳 같았다.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인더스트리아 지하 같은 빛이 없는 장소랄까? 마석가구단지를 오고간 시간이 10년이 흘렀다. 그 시간동안 마석가구단지에 살아보기도 했고, 식물을 키우기도 했으며, 락 페스티벌을 열기도 하고, 연극, 패션쇼, 축제 등 많은 것들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일상, 삶을 나누는 시간 안에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다. 그 대화에서 흘러나온 것, 그래서 아쉬워했던 것이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꿈을 꾸고 상상했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감동의 순간들을 만났다. 어느 자리에선가 우리는 이런 상황을 피부가 기억하는 수많은 순간들이라 말했다. 협업자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알럼¹⁾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즐거움”이라 표현했다.

적극적 만남과 제안

2008년 믹스라이스의 활동이 정체되어 있을 때쯤, 알럼이 자신이 연출한 연극에 출연을 요청했다. 연극 제목은 <불법 인생>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에 얽힌 상황을 담아낸 연극이다. 우리는 토요일 마다 마석가구단지 샬롬의 집 강당에 모였다. 주말에도 일이 있어 연습에 나오지 못하는 배우들을 서로가 대체하며 아슬아슬한 연습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 시나리오의 마석가구단지의 사실을 바탕으로 쓰인 것이다. 연극 연습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연출가 알럼과 함께 연습 때마다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수정했으며, 자신의 단속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서로가 지도, 학습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한국어의 억양과 발음을 지도받았고, 움직임의 흐름과 제안을 통해 매주 새로운 상황과 변화가 연습으로 진행됐다. 연극 대사를 애드리브로 채우며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했고, 엉뚱한 대사를 통해 한참이나 웃을 수 있었다. 이 연극 연습의 시간은 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였다. ② 그 삶에 대해 주관적,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③ 그 이야기를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 할 수 있었다. ④ 그 표현의 다양성과 개입은 서로에게 학습을 통해 나뉘어졌다. 이렇듯 함께 했던 연극 연습은 연극을 무대로 올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나누고 이해하는 공동의 삶에 개입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만남, 그 관계의 두터움

연극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후 알럼은 패션쇼를 기획했다. 패션쇼는 마석가구단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작업복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것이다. 누구는 페인트복장을, 누구는 절단 작업을 하는 복장을 하고 나와 무대에서 힘차게 걷는다. 이 또한 참여자들의 개인적 상황과 삶이 결합되어 신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우리가

1) 마석이주극장에서 연극 시나리오 및 기타 연출로 활동 하고 있다. 마석 거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정권이 바뀌고 개발붐이 낙후된 마석가구단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알럼과 우리는 개발로 인해 마석가구단지가 사라졌을 때, 그곳에 살았던,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 때 경기문화재단 다문화커뮤니티 사업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마석가구단지에서 커뮤니티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작은 움직임을 펼치는데 함께 하면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으로 우리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발은 기억에 반한다. 개발 후의 풍경은 마석가구단지의 기억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석가구단지를 기억할 수 있는 문예집을 만들기로 했다. 문예집 이름은 알럼이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바다에 갔다 온 계곡 개구리>라고 붙였다. 미얀마 노동자 투는 마석가구단지에 대한 시를 썼다. 모누는 마석가구단지에서의 삶의 에세이를 실었다. 마석가구단지를 떠나 돌아간 이주노동자에게도 편지를 받아 실었다. 함께 일하고 지내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터뷰도 진행했고, 곳곳에 들어간 사진을 알럼과 로톤이 촬영했다.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다.

우리는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솔직하게 던지기도 했다. 예술가 그룹인 믹스라이스가 마석가구단지에 와서 촬영을 하고 책을 만들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가? 우리는 예술가이고 너희는 노동자인데 그 관계와 만남이 불편하지 않은가?(과거에 연극 연습을 했던 사진을 한국인 사진가가 촬영했는데, 단속반의 형사의 손에 그 사진이 들려 있는 상황을 안 이후에 알럼의 연극 연출은 한동안 중단되었다.) 알럼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했다. “사진에 나오고 인쇄물에 나온다고 단속에 더 노출되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신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듯 만남과 관계, 함께 모색하려는 것, 사려 깊고 필요한 질문들 그 사이사이에 연극이 있었고, 패션쇼가 있었고, 책이 있었다.

일과 삶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삶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 삶을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알럼의 표현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은 삶을 기반으로 공유와 공감을 통해 함께 나누려는 의지를 통해 가능하지 않은가? 그 의지를 사용하기 위한 언어가 문화예술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도구나 방법론이 아닌, 삶의 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과 이해의 총체적인 움직임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의지를 통해 모아진 것들의 지혜이다. 그 지혜는 자발적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하고, 함께할 사람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며,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현재 알럼과 우리는 마석가구단지에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주노동자와+예술가가 협업하여 일과 문화예술적 삶이 펼쳐지는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모험에 뛰어 들었다. 이 모험이 어떤 지도를 그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괴리된 삶의 지형을 바꾸려는 끈질긴 노력과 문화적 삶이 풍부한 세계를 만든다는 설렘이면 충분하다. 삶의 기반을 둔 움직임이 문화예술교육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다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순조로운 순환을 꿈꾸는 것 해볼 만하지 않은가! ■

생활예술공동체 ‘문화바람’ -자발적인 생활예술활성화의 조건-

임승관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 문화예술은 유기적인 생명체다.

생태계(ecosystem)는 특정한 단위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생물체와 그들 간의 모든 상호관계를 밝히는 구조로 전체가 존재하는 조건이 된다. 문화예술의 창작/생산·매개/유통·수용/소비 등 구조를 이러한 생태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미는 각 부분을 전체 안에서 연관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성장방향을 찾고자 함이다. 크고 작은 순환구조의 역할과 속성의 이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발전 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 활동은 전문작가들 뿐 아니라 문화산업 또한 양질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도 소비를 이끌어내는 건실한 동력이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시민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인 동아리 조직과 운영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위이므로 스스로 예술에 대한 친숙한 이해를 높인다. 이렇게 문화를 대하는 높은 시민의식은 문화산업의 성장도 견인 할 것이다.

■ 문화바람의 실험

1. 시민의 소외된 문화권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인천도 주로 전문예술을 시민에게 보급하는 문화정책을 지향하면서 대형 문화공간과 관련시설의 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네 속 작은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것은 사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문화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환경이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은 권리이다. 이를 위해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지 못했다. 정책적 지원 근거가 되는 ‘생활예술’과 ‘문화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2. 시민의 문화욕구가 대안정책의 출발이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이하 센터) 1996년부터 문화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그 후 2005년 재창립을 맞아 낙후된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예술가나 정부정책이 아닌 시민문화운동에서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민이 적극적인 문화수용자로, 생활권내 일상영역에서 창작과 향유, 유통의 건강한 주체가 되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토양을 만드는 시민문화공동체‘문화바람’이다.

오랜 동안 인천은 인근 타 도시에 비해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이 오지 않았다. 인천 시민은 공연을 잘 보지 않아 기획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즉 인천에 열악한 문화환경은 그 책

임이 시민에게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센터가 인천시민들에게 문화수용자운동을 설명하고 CMS회원을 모으기 시작한지 2년 만에 400여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는 센터가 96년부터 8년 동안 연평균 회원이 50명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 곡선이다.

우리가 회원이 되어 돈을 모아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무료로 관람하자는 문화수용자 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2006년 첫 번째 공연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콘서트’ 때에 2회공연을 껍 채운 1600명의 관객을 보면서 인천시민은 공연을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못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인천 시민에 그간의 평가가 잘 못된 것임을 알았고, 또한 변화에 대한 요구와 참여의지가 있는 것도 조심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늘어난 문화바람 회원은 연 5회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는 회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1회 자신이 원하는 장르를 직접 배우고 연습하는 동아리회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예상하지 못 했다.

3. 동아리 속성

문화 수용자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회원들 스스로가 듣고 싶은 강좌와 강의, 배우고 싶은 동아리를 만들었다. 특별히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동아리도 있지만 대개는 좀 더 잘하는 회원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동아리가 대부분이다.

동아리 참여 동기는 2~3회 모임이 지나면 개인(나)이 아닌 ‘우리’로 바뀐다. 경쟁적 이해관계 없이 같은 취미의 공감대로 만난 사람들,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동등한 사람들. 서로를 위해 간식을 사오고, 바뀐 머리스타일에 감동하며, 생일과 이름을 기억한다. 불안한 고용현실과 냉정하고 고된 일상을 견디게 하는 공감적 소통이 문화를 매개로 위로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모든 회원은 처음 몇 개월은 동아리를 운영하는 매개자(문화 활동가)에게 의지한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회원은 동아리 운영자와의 관계에 따라 활동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회원을 돕기 위해서는 깊은 대화나 세심한 배려가 있는 준비된 뒤풀이가 공식일정으로 되는 것이 좋다.
- 전문예술가가 운영자로 들어가는 경우 기능의 수월성을 내세워 기존 구성원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사가 강습진도에 쫓겨 기능습득 외에 회원의 다양하고 일상적인 논의를 금기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이다.
- 시민문화활동의 매개자는 장르기능과 교수능력 외에 구성원들의 관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십이 더 요구된다.

제일 오래되고 회원이 많은 동아리부터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은 사회공헌 현상이다. 관계 맺고 있는 고아원 등 시설에 찾아가는 공연을 논의한다. 물론 힘들게 결정하고 시간을 더 내어 연습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충족하는 조건은 능숙한 기능만이 아니다. 오랜 동아리 활동 속에서 쌓인 자존감과 팀에 대한 자신감이다. 필자는 이 단계에 들어선 동아리는 나와 우리를 넘어선 사회적 단계로 가장 안정적인 높은 수준으로 본다. 건강한 문화사회 구성원으로 주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4. 생활예술 발표의 장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서는 두 번째 난관은 발표의 장이다. 부평의 복합 문화공간 아트홀 ‘소풍’의 경우 2006년 회원들이 시민과 함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 했다. 시민기금을 포함해서 회원의 출자금을 모아 작은 소극장을 만든 것이다. 당시 인천에 하나뿐인 소극장이었다. 모

두가 바라던 꿈이기에 현실이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원들의 자존감은 한층 더 높아졌다. 또한 작은 극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예술가와 다른 생활예술동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졌다.

일 년에 한번 이상 동아리 정기발표를 하고 이틀에 걸쳐 동아리 축제도 한다. 특별히 신입회원에게 동아리 정기발표회는 처음으로 조명을 받으며 관객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이다. 아내와 남편, 가족이 와서 응원을 해도 떨어진다. 대기실의 청심환과 소주병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연을 마치면 가족들은 새로 발견한 자랑스러운 예술가와 멋진 가수를 맞이하게 된다. 전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 동아리의 발표활동은 기능수준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동아리)에서 얻은 자존감이다. 함께 배려하고 어울리면서 쌓아온 소중한 공동체에 대한 자신있는 공유태도다.

5. 제3섹터의 해방공간 시민문화공간 ‘놀이터’

공연장이 생기고 동아리 회원이 늘면서 안정적인 연습공간이 필요했다. 민원을 해결할 방음 공간이면 더욱 좋다. 사무국 공간을 줄여 이사하고 남은 보증금에 동아리 회원 출자금을 모아 동아리 연습공간인 ‘부평 놀이터’를 회원들과 함께 만들었다. 한 겨울 두 달 동안 공사를 했다. 우리가 디자인 하고, 공사한 최고의 방음실과 모임공간을 마련했다.

‘놀이터’의 모든 사업과 재정은 동아리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에서 기획하고 결정한다. 매년 진행하는 ‘끼가번쩍’ 시민동아리축제와 회원 체육대회, MT 등 회비조정과 예산사용내역도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이밖에 다른 동아리에 대한 이해와 요청, 회원들의 다양한 생활어려움도 논의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운영위다.

- 구성원이 공간에 대한 자발성과 창조적인 활용을 가지려면 우선 그 공간에 대한 주인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 예산 집행권한과 사업기획에 결정권이 진정한 주인의 요소다.
- 문화공간의 경우 공간에 대해 주인의식이 없으면 속성상 이용자는 공간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공간시설에 대해 바라고 요구하게 된다. 즉 공간을 고마워하는 민원인이다.
- 공공문화공간이 이용자에 의해서 스스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을 넘어 권력을 나누어 자치를 하는 것이다.

6. 시민문화공간의 성장 단계

- 공간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은 그에 맞는 구조와 단계를 거친다.
- 공간 운영이나 사업 내용은 이용회원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절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변경(보류, 폐기) 될 수 있어야 한다.
- 3년 이상 꾸준히 자율적으로 운영된 공간의 경우 매개자의 노력에 따라 이용 구성원은 일상생활 의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름의 공간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
- 이 단계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 등 생활민주주의가 안정화 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확장된 의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것이다.

‘문화바람’도 이러한 민주적인 소통과 결정과정이 참여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있었다. 2011년 두 번째 동아리 연습 공간 ‘남동놀이터’와 ‘시민문화살롱’이 있는 4층 건

몰의 one_stop 시민문화공간 ‘문화바람’에 도전하였다. 인천문화재단의 문화공간지원사업의 도움으로 한시적이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고 일억 원이 넘는 공사비와 칠백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스스로 감당하는 자생력을 벌써 3년간 유지하고 있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함께 바라는 꿈은 그 한계가 없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CMS문화바람 회원은 1200명이 넘었다. 그 과정에서 ‘문화바람’ 회원들은 인천에 살면서 내가 바라는 문화 환경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씩 느꼈다.

내년 8월이면 문화재단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올 초 동아리 총회에서 회원을 중심으로 2억5천을 협동조합방식으로 모을 것을 대략 결정하고 자세한 방법과 시기는 운영위로 넘겼다.

7. 공간운영에서 매개자 역할

공간 상근자들의 갈등해결 능력과 함께 생활예술에 대한 입장 일치가 중요하다. 생활예술공간의 의미와 역할 등이 상근활동가들의 학습과 수평적 토론을 통해 조율되고 온전하게 합의되어야 비로소 시민과의 여러 사업 속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이 결정되어 실행한 후에도 다시 주민과 만나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을 실행하는 상근활동가들은 회원과의 정서적인 일치가 중요하다. 회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 창조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나가며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연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문화사회라 할 때 정치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로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서구 역시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제도와 장치들만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각성된 시민주체가 만들어 지면서, 토대가 만들어져 서서히 형성되어 졌다.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만들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이는 지역이라는 삶의 생활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교육, 환경, 육아, 등의 해법을 자연스럽게 토론되어 현실로 만든다. 그 동안 그렇게 마을의 담장이 사라졌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생겼다. 잘못 집행된 세금이 마을기금으로 되돌려져 활용되었고, 없어지게 될 환경이 보존되기도 했다. 시민 스스로 즐겁게 지역정치와 지역살림을 생활인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문화사회는 그 구성원이 누리는 문화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결국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만나고 그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이유는 특정 예술장르의 기능 습득과 숙련을 넘어 지금보다 나은, 아름다운 사회가치를 스스로 만들자는 것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인 경험 축적은 생활민주주의 체험으로 시민의식의 각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문화바람 회원은 씨앗이다. 씨앗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정책은 어떤 꽃으로 피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결과가 아니다. 각자의 유전자와 자양분을 믿고 존중해서 발아하는데 필요한 온도와 습도만을 제공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핀 다양한 꽃은 하나하나가 건강하다. 문화도시는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자란 그 다양한 꽃들이 만든, 어쩌면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영토다. ■

기뻐서 기꺼이 하는 문화예술교육

민경은 / 여러가지연구소 대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을 찾아서

13월, 지난해의 작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마무리 될 리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 신청의 계절을 맞이하고 지나보냈다. <땀땀 공작소> 오픈 스튜디오²⁾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마땅히 춤추고 노래해야 할 몸과 마음은 몇 개의 지원 신청서를 열어 놓은 컴퓨터 앞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착취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신청 마감시간을 두고 지난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능해보는 시간을 원치 않는 순간에 가지고 나니, 피로감이 밀려왔다.

마치 자율적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자기 착취적 작업을 하며 삶은 피로해지고, 말 통하는 친구는 점점 줄어들고, 가족 안으로 들어가면 히스테릭한 채로 남아있던 나의 모습, 어쩌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무난히 대화다운 대화가 이뤄진다고 싶으면 삶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기보단 어느새 각자의 경험을 자랑하고, 피해의식을 공유하는 대화로 흘러갔던 공허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두드러기가 일어나 찾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면역력 결핍’이라는 진단은 내 몸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닌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미쳤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예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즐거운 끈기, 표준화된 평가와 정답을 요구하는 제도권 교육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의미들을 통합해나가는 유연함과 집중력,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에는 과정을 즐기며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의 에너지를 잊고, 잃고, 놓치면 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면역력은 저하되기 마련이다. 이런 말들은 허끝에 매달린 채 입 안에서만 맴돌아 작년 이맘 때의 포럼에서 ‘자발적 고립’을 하는 게 낫겠다는 엄살 까지 부렸던 기억도 되살아났다.

2013년 한해는 여러가지연구소가 지역에서 활동한지 햇수로 4년째였는데, 지역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진 해이다. 순간, 기쁨의 샘을 팔만큼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몸 안에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저항력과 면역력은 서로에게서 발견한 새로움이 아닌 다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가지연구소 내의 움직임과 관계가 일부 사라져가면서 곧 느끼게 되었다. 작은 커뮤니티 안에 새로움이 사라지고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과 충돌이 남았다.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한 활동이 주는 공허함과 무력감은 자괴감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럴 때, 난 누구랑 이야기해야하지? 막막하기도 했다.

한편, 다름이 소통될 때 삶의 구체성들이 드러나고 개별의 특이성이 드러나는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의 과정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 즉, 변화가 주는 기쁨과 기다리는 시간, 여유로운 마음을 조금씩 찾아가는 현재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2) 땀땀 공작소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60년여 봉제경력 의 옷 수선 집 장인을 만나 학습의 장을 만들어가며 비정형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땀땀 공작소 오픈스튜디오는 학습의 장에서 얻은 것들을 시민 참여 워크숍으로 재구성하여, 2014년 1월 중에 10일간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삶을 가꾸어가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와 예술이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다. 교육의 과정을 통해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형성시켜 나가는 실제로서의 교육이 문화예술교육 아닌가.

삶의 문제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바라본다면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자연스러워지며, 이것이 내 삶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운동의 진정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한다.

여러가지연구소가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Don't Do It Yourself(이하 D.D.I.Y) 프로젝트³⁾는 혼자 만들기 어려운 삶의 조건을 함께 가꾸어가고자 하는 과정이고, 움직임이고자 한다.

청소년들과는 함께 카페를 만들어보며 프로젝트 안에만 존재하는 카페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확장되는 카페를 꿈꾸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학교교사, 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한 D.D.I.Y CITIZEN 매개자 워크숍에서는 제도적 교육이 비제도적 감성의 자유로움과 연계될 때 일어나는 즐거움과 가능성을 만나고 있다.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과정은 지난하고 힘들지만 매력적인 것은 어쩌다가 마주치는 서로의 발견과 가능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이 허용하는 감성과 공감, 나아가 영성, 의미 만들기의 다양성과 차이의 존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 그 자체로 예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학교 교사와 소통하고 나니, 공유는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것임을 느낀다. 그리고 제도적인 혁신이 중요한 만큼 교육구성체들 내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 공감과 상상이 펼쳐지는 공유지와 안팎으로 순환하는 것을 꿈꾸게 한다.

기뻐서 기꺼이 하는 문화예술교육

점점 작은 변화에 감동하게 된다. 성과를 수확하고자 하는 호들갑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지만, 반복되는 일상에서 발견하는 인연과 사물들에게 가능성을 백분 실어 뺏겨간 호들갑이 아니라면, 감동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정확한 의미를 담아 몸에서 나온 말이 담기고 소통되는 장이 기쁘게 열리고, 그 장에서 감동을 나누면 좋겠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안목이 꾸준히 유지되어서 모니터링을 통해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켜켜이 쌓아 꾸준히 감동의 지층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도 지원도 서로 기뻐서 기꺼이 하는 자기 몫으로의 움직임과 자기 목소리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그런 일들만 남으면 참 좋겠다)

기뻐서 기꺼이 하는데, 토양 탓 하지 말라고?

일상에서 같고 뿌리고 세우고 기다리고의 반복하는 움직임에 함께 춤추며, 제각각 시간을 달리 띄우는 싹을 기다리고 자라나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함께 노래하는 토양으로 우정을 쌓아 나가면 참 좋겠다. 들판에 들꽃들이 어우렁더우렁 피어있듯이.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어 예술가와 문화예술교육활동가들의 삶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층을 두텁게 하며 온갖 장애물들을 즐겁게 넘는 친구가 많아지면 참 좋겠다. 새싹이 얼은 땅을 뚫듯이. ■

3) D.D.I.Y(Don't Do It Yourself)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의 가치를 지향하며, 함께하는 과정 안에서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해나가길 바란다.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발성, 실패를 즐기는 실험, 지역을 통한 지구와의 교감, 서로간의 자원 공유를 즐긴다.

한 사람의 혁명을 위하여

고영직 / 문학평론가

나는 여러분에게 1인 혁명을 명령합니다.

그것만이 실현 가능한 유일한 혁명입니다.

— 로버트 프로스트 시 「토양을 만들자(Build Soil)」(1932) 중에서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로만 풀 수 없다. 교육 문제를 교육 문제로 푸는 대중요법으로는 진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교육 문제의 해법은 나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치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무엇이 좋은 삶이고, 무엇이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런 삶과 사회를 위해 ‘저마다’ 실천하고 ‘더불어’ 연대할 때 교육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은 문화예술교육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제도화 10년이 학교 안팎의 현장에 드리운 ‘그림자’가 너무나 넓고도 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철학자가 “좋은 실천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 말처럼 좋은 실천을 위한 사유와 행동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 이기심과 경쟁의 신화를 철저히 내면화하면서 성공, 부유, 건강, 명예를 추구하는 스nob의 삶, 즉 그들만의 사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승리자(winner)가 된다는 판타지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일까. 그렇지만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전적으로 법(제도화)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한,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제도화 10년을 맞는 동안 무수히 하지 않았던가. 하나의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또한 어쩌면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차라리 어느 경제학자가 『강수돌 교수의 ‘나부터’ 교육혁명』(2003)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바 있는 ‘나부터’ 교육혁명이라고 한 말에 더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나부터’ 교육혁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교육공학적 입장에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대상이 되는 아이들 혹은 성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부터 바꾼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병든 교육의 문제가 병든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나 또한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의 저명한 아나키스트운동가 애먼 헤나시(1893-1970)가 주창한 바 있는 ‘한 사람의 혁명(One-man Revolution)’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한 사람의 혁명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한 시도라는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을 승인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시스템의 인질 신세에서 벗어나고, 규칙의 내면화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시스템의 인질 신세를 면치 못했다!

지금의 문화예술교육 문제는 예술교육 정책에 있어서 표준화 문제와 함께 이른바 ‘지침 행정’이라는 이름의 사회적·심리적 관리기술을 너무나 섬세하게 적용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런 표준화 정책과 관리기술이 우리가 일정한 리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감각을 완벽히 상실한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재구성하려는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은 말할 나위 없다. 나는 이 점에서 E.F.슈마허의 용법을 차용하자면 “최고의 행정은 ‘행정부정이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슈마허는 ‘최소한’의 행정으로도 잘 돌아가는 조직구조를 찾아내자고 역설한다. 슈마허가 자발성을 억압하는 이른바 크리스마스 트리 유형의 조직 대신에, 놀이공원에서 끝에 수백 개의 작은 풍선이 달려 있는 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닥에서 있는 조직 유형을 이상적인 구조라고 파악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그 줄을 놓치지 않고 잘 쥐고 있을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이 비유는 인간적 접촉이 가능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조직 유형의 원칙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슈마허가 제창한 행정부정이론을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서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의 혁명이 갖는 의미와 맥락에 대해 더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와 맥락은 아마도 미국 작가 리 호이나키가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1999)에서 우리는 지금 세 종류의 분리 혹은 고립 상태에 처했다고 진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사람을 그 육체와 장소와 시(詩)로부터 떼어놓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시대에 전면화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육체, 장소, 시(詩), 이 세 종류는 실상 우리 삶의 핵심 구성원리가 되어야 한다. 리 호이나키의 진단에서 나는 육체, 장소, 시(詩)의 회복이야말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이고 지향점이어야 하며, 우리 삶의 새로운 재구성을 위해 필요한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는 육체노동을 혐오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의 토착적 에토스로부터 추방당한 근대의 저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삶의 온전함을 위한 필수적인 시의 세계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 산문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산문적 삶을 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삶에서 ‘기쁨’이라곤 없이 강압과 의무만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산문적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처리해야만 하는 과다한 정보로 도처에서 정보 과부하에 시달리는가 하면, 늘 접속 가능하고 항상 연락할 수 있어야만 하는 과잉 커뮤니케이션에 중독되었다. 과연 그런 산문적 삶에서 우리들 자신이 웰리빙(well-living)의 기쁨과 의미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 점에서는 성인들은 물론 이요, 소비주의에 중독된 아이들 또한 별다를 바 없으리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인생에서 저지른 최대의 실수를 묻는 질문에 독일의 어느 재력가가 “친구들과 지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고 고백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의 주체로 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에 더 철저히 봉사해야 한다. 문화정책을 세심하게 시행한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폼피두가 “예술은 관리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뼈대이며, 뼈대이어야 한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 한나 아렌트가 “문화(즉 예술)의 핵심은 아름다움이다”라고 주장한 것 또한 인간의 진취성과 문화예술과의 관련 양상을 언급한 주목할 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 단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보충성(subsidiarity)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이 보충성의 원리는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사람의 혁명이 어느 때보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의 리 호이나키는 좋은 삶은 ‘용기’의 결여, ‘상상력’의 결여 그리고 ‘진실’의 결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용기, 상상력, 진실이 결여된 삶은 주체적 행동 대신에, 조건반사적 행동이 지배적인 양식이 되어버린 삶을 의미한다. 그런 조건반사적 행동이 지배적인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사람은 필연적으로 정신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정신적 무감각 상태에서 핵무기적 자아가 발아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이 꼭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어떤 나쁜 관행들과 습속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 글의 제사(題詞)에 인용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토양을 만들자」는 한 사람의 혁명에 동참하려는 나와 우리들의 슬로건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너무 비장하지는 말자. 언제나 항상 웃음과 여유를 잃지는 말자. 저 톨스토이 소설에 등장하는 ‘바보 이반’처럼! 거룩한 바보가 나와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